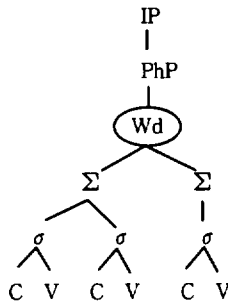


통사단위로서 구분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1b)는 이 문장의 실제 발화에서 나타날 수 있는 평면적(flattening) 운율구조를 갖고 있음을 본다. 즉 이 문장의 억양구에는 세 개의 주요 휴지가 cat와 rat 다음의 자리에 위치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통사구조와 운율구조는 서로가 다를 수 있음을 전제로 해서 이 논문에서는 운율구조³⁾ 중에서 운율단어(phonological word) 보다 상위층에 있는 음운구(phonological phrase)와 억양구(intonational phrase)의 통사구조와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보임으로써 통사론 중심의 문법학습이 효과적인 구어 영어학습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재조정규칙과 음운규칙을 거쳐 나온 PF⁴⁾에서 구어 영어학습의 입력부를 찾아야 보다 더 효과적인 학습이 되리라는 가설을 세우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음운구와 통사구조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논할 것이고, 제3장에서는 억양구와 통사구조 사이의 관계를 다루며, 제4장에서 이 논문의 결론을 맺고자 한다.

- 3) 영어의 운율구조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Nespov & Vogel(1966)의 모델과 Selkirk (1984)의 모델을 들 수 있는데, 이 두 모델의 구체적인 차이는 무시하고 이 논문의 전개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볼 때 대체로 다음을 고려할 수 있다.



(여기서 IP = Intonational Phrase, PhP = Phonological Phrase, Wd = Phonological Word, Σ = foot, σ = syllable을 나타냄)

그런데 이 표에서 보듯이 원으로 되어 있는 Wd를 중심으로 그 하위층은 음절과 음보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상위층에는 PhP와 IP가 있다. 통사구조는 문장의 구조를 의미하므로 통사구조와의 관계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는 이 모델에서 PhP와 IP와의 관계로 압축된다.

- 4) PF는 음성형태(phonetic form)로서 LF와 더불어 S-구조(S-Structure)로부터 분화되는 Chomsky 문법모델의 한 부분을 의미한다.

2. 음운구와 통사구조

음운구는 음운단어가 모여서 이루어지며 억양구 보다는 작은 단위이다. Zwicky(1984: 52)에 의하면 구(phrase)는 통사구(syntactic phrase), 의미단위(semantic unit), 어휘단위(lexical unit) 그리고 음운구(phonological phrase) 등 4개의 개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음운구와 통사구 사이의 관계만으로 제한해서 논의를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 이 경우에도 통사적 성분에 의존해서 음운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음운구와 통사적 성분을 변형시켜서 설명해야하는 음운구로 나누어 논의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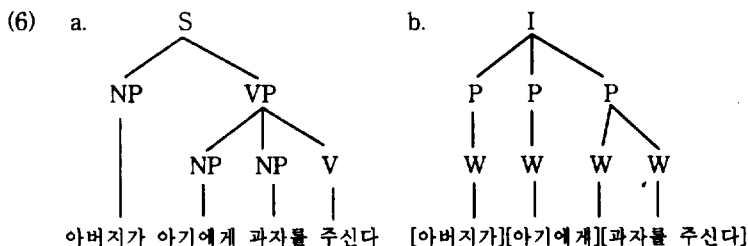
먼저 전자의 경우, 즉 음운구가 통사적 성분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우를 위해서 다음의 불어에서 나타나는 연음현상(liaison)을 보자.

- (2) a. bon^ˈoignon 'good onion'
 b. bon / et gros^ˈoignon 'good and big onion'
 c. un endroit / obscur 'an obscure place'
 d. une maison / en pierre 'a house of stone'
 (여기서 'ˈ'는 연음현상이 일어나는 경우이고, '/'는 연음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를 나타냄)

(2)의 예에서 보듯이 연음현상이 항상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조건에 부합될 경우에만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를 위해 Rotenberg(1978)와 Kaisse(1985)는 각각 다음과 같은 통사적 원리를 제안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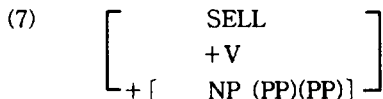
- (3) a. Right-Branch Condition (Rotenberg: 1978)
 Liaison may apply between two words **a** and **b** if **b** ends the constituent that contains **a** (or if **a** is a nonlexical item)
- b. C-Command (Kaisse: 1985)
 Liaison applies between **a** and **b** where **b** c-commands **a**.

분명하게 나타내기 위해 나무그림을 이용하면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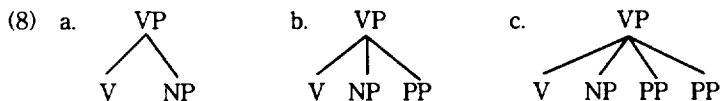


통사구조인 (6a)와 음운구조인 (6b)를 비교해 보면 (6a)에서 하나의 단위로 있는 VP가 (6b)에서는 두 개의 P로 나뉘어 있는 것을 본다. 앞에서 제시했던 (1)의 경우와 같이 여기서도 이른바 재조정규칙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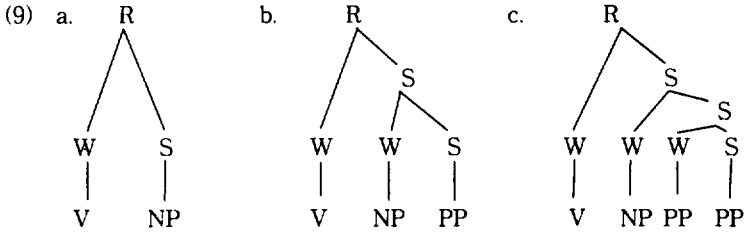
유사한 예를 영어에서도 들 수 있다. 영어의 동사 sell의 통사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이 단어의 하위범주화를 먼저 고려하면 다음과 같다.



이 하위범주화가 의미하는 것은 sell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 개의 가능한 통사적 분지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세 통사적 구조가 NSR을 따를 경우 각각 다음의 세 운율구조로 실현되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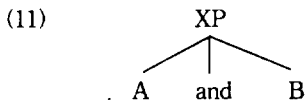


여기서 (8b)와 (9b)를 비교해 보면 통사적으로 독자적인 두 개의 마디가 음운구조의 이분지성으로 인한 하나의 성분으로 구성되는 것을 본다. (9c)에서도 마찬가지로 (8c)에서 통사적으로 독자적 성분이었던 두 개의 PP가 음운적으로는 하나의 성분을 구성하고 있고, 또 (8c)에서 독자적인 세 성분 NP, PP, PP도 (9c)에서는 하나의 성분 S로 구성되는 것을 본다.

통사적 구조가 재조정규칙을 거쳐 음운구조로 변형되는 것을 보이는 영어의 또 다른 예를 이항명사류(binominal)에서 찾을 수 있음을 본다. 이항명사류란 'A and B'의 구조에서 A와 B의 순서가 고정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영어의 다음과 같은 예가 이에 해당된다.

- (10) a. ladies and gentlemen (*gentlemen and ladies)
 b. black and white (*white and black)
 c. east and west (*west and ea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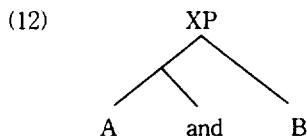
(10)을 대표해서 나타내주는 통사구조는 다음과 같은 삼분지 구조를 갖는다.



(10a)에서 A에 해당되는 요소의 음절수가 B에 해당되는 요소의 음절수 보다 하나 적다는 사실과, (10b)에서 A에 해당되는 요소가 이중모음인 것에 반해서 B에 해당되는 요소의 모음이 단모음인 것 등을 고려할 때⁵⁾ 접속사 and는 B 대신 A와 음운적으로 결합되어 하나의

5) 여기서 (10c)에 대한 언급은 생략하고 있으나, 사실은 이 경우 A에 해당되는 요소의

음운성분이 된다고 가정하고 다음의 구조를 제안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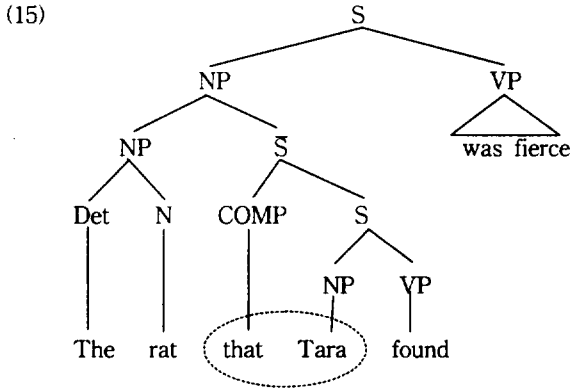


지금까지 한국어의 예와 영어의 예를 제시함으로써 통사구조와 음운구조 사이에 구분이 되고 있음을 보였다. 그러면 이번에는 영어의 의존소(leaners)가 음운구의 형성에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Zwicky(1984)의 예를 인용해 본다.

- (13) a. [the lion]
 b. [went] [to Africa]
 c. [and] [Susan]
 d. [big enough]
- (14) a. The rat [that Tara] found was fierce.
 b. You know [that Sam] will soon be here.
 c. It was Africa my brother [went to].
 d. I would [hate t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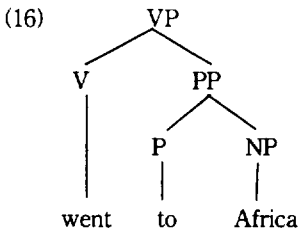
(13)의 예는 음운구가 통사성분으로써 형성되어 있는 경우이다. 그러나 (14)에서는 각괄호 부분에서 보듯이 통사구조에서 음운구를 위한 재조정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14a)에서 각괄호의 [that Tara] 부분은 통사적으로는 자매(sister)를 형성하고 있지 못하는 부분인데도 음운구를 이루고 있음을 뜻한다. 이를 보다 분명하게 설명하기 위해 다음의 통사구조를 보자.

모음이 B에 해당되는 요소의 모음보다 더 전설모음적이며 또 고모음적인 특성이 있다. 즉 east의 [i]가 west의 [ɛ]보다 더 전설모음이고 고모음이다. 이에 대한 보다 더 자세한 논의는 Lee(1990)를 참조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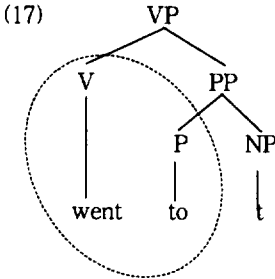


(15)의 점선 부분이 말해주듯이 that과 Tara는 각각 COMP와 NP마디로서 통사적으로 하나의 단위가 될 수 없음에도 가능한 음운구를 이루고 있음을 본다.

이번에는 또 (13b)와 (14c)를 비교해 보자. 전자에서는 다음의 나무그림에서 보듯이 통사구조에 따라 Africa는 전치사 to와 더불어 하나의 성분 PP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는 음운구 went to에서 다음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Africa가 앞으로 이동되면서 to가 외톨이로 남게 되고 이 to가 동사 went와 더불어 음운구 단위를 이루게 된다.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Zwicky(1984: 53)는 다음의 의존소에 관한 특성을 제시하고 있다.

- (18) a. 의존소는 주변 성분에 운율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단어이며 일반적으로 기능들이 여기에 속한다.
 b. 의존소는 주변 성분과 더불어 리듬의 단위를 이루며 강세를 받지 않는다.
 c. 의존소는 어느 한 쪽의 자연스런 자매성분에서 분리되면 다른 쪽에 붙어서 새로운 음운구(phonological phrase)를 구성한다.

이에 따르면 앞의 (16)과 (17)의 비교가 바로 (18c)를 의미한다. 그런데 만일 (18c)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즉 분리된 의존소가 좌초된(stranded) 채로 남아있게 되면 음운구를 구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리듬적으로 비적형(rhythmically ill-formed)이 된다.

이상과 같은 논의를 토대로 해서 다음의 예를 더 보자(Zwicky: 1984: 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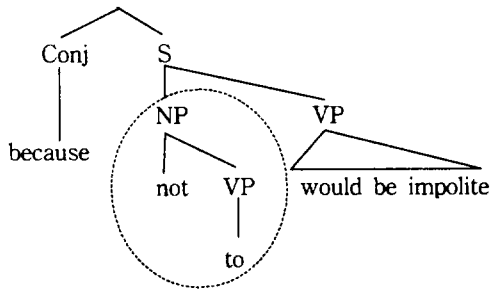
- (19) a. You must write a thank-you note, because [not to] would be impolite.
 b. *You shouldn't play with rifles, because [to] is dangerous.
 c. I might whittle a polar bear out of Ivory soup, but I don't know [how to].
 d. *She'd like to surprise him, but I don't know whether [to] is possible.

(19)의 모든 예에서 의존소는 to-부정사로서 to 이하의 동사구가 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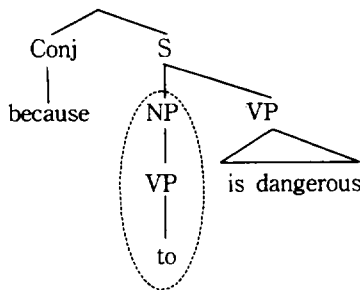
략이 되고 부정사 to만 남게 될 때 (19a, c)는 문법적인 반면에 (19b, d)는 비문법적이 된다. 이는 전자의 경우 각괄호에서 보듯이 이 to-부정사가 앞에 있는 강세받는 성분에 의존해서 음운구를 형성하는 것에 반해서 후자의 경우는 to-부정사가 앞에 있는 강세받는 어느 성분에 의존되지 못하고 홀로 좌초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를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 (19)의 네 문장에서 밀줄 친 부분에 대한 다음의 통사구조를 참고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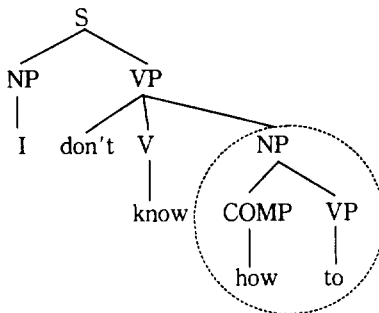
(20)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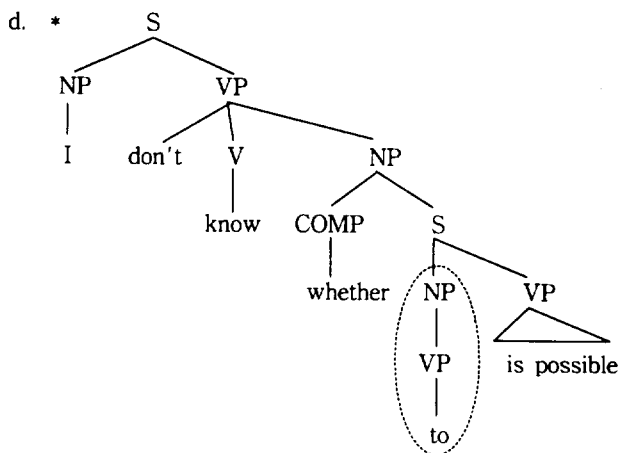


b. *



c.





(20)의 네 예에서 점선으로 된 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a)와 (20c)에서는 to-부정사가 외톨이로 남아있지 않고 그 왼쪽에 있는 다른 요소와 자매관계를 유지하면서 음운구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즉 (18c)를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문법적이 된다고 말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20b)와 (20d)를 보자. 이들은 위의 구조에서 보듯이 to-부정사가 좌초되어 있으며, 바로 왼쪽 요소와 자매관계를 이루고 있지 못하다. 즉 (18c)를 준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음운구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두 경우는 비적형의 리듬이 되는 셈이다.

3. 억양구와 통사구조

모문장(matrix sentence)은 하나 이상의 억양구(IP)로 구성되는데 Pierrehumbert(1980)의 음성적 지표에 의하면, 어느 문장이 하나의 억양구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는 문장의 양쪽 끝에서 각각 하나의 경계성조(boundary tone)를 갖고 있지만, 두 개 이상의 억양구가 있는 문장에서는 문장의 중간에 H이거나 L인 경계성조가 실현된다.

예를 들어 다음의 문장을 보자.

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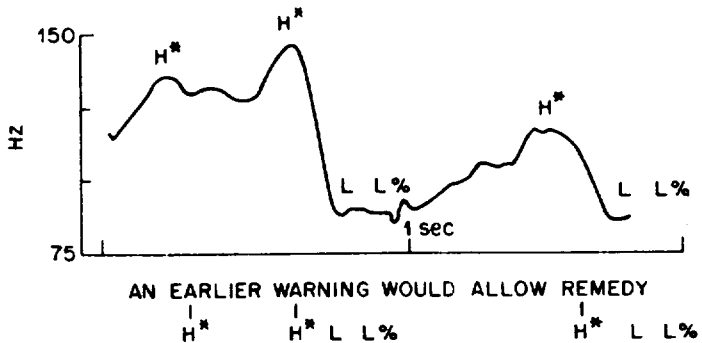
(21) After the musical, they went for a late snack to Ella's.

(21)을 보면 비강세음절 -cal에서 지속상승(continuation rise) 성조가 나타나고 이 음절 바로 다음에서 IP의 경계가 이루어져 이 문장은 두 개의 IP로 분석된다.

(22) $IP(\text{After the musical})_{IP} IP(\text{they went for a late snack to Ella's})_{IP}$.

한편 IP의 끝은 기본 주파수(fundamental frequency= F_0)가 급격히 하락하는 곳이다. 예를 들어 영어의 문장 'an earlier warning would allow remedy'에 대한 F_0 의 변화를 나타내 주는 표를 Selkirk(1984: 289)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23)



이 표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an early warning은 'early'와 'warning'의 첫 음절에서 각각 하나의 음정액센트(pitch accent) H*를 갖는 명사구로서의 IP를 구성한다. 또 동사구 would allow remedy에서는 remedy에서만 하나의 H*를 갖는 IP를 구성하고 있다. 따라서 (23)에 따르면 세 개의 H* 중에서 첫째 H*와 둘째 H* 사이의 경사보다 둘째 H*와 셋째 H*사이의 경사가 더 현저한 것을 본다. 바로 이 부분이 IP의 경계가 된다. 이 점을 고려할 때 이 문장은 다음의 두 IP로 분석된다.

(24) $IP(\text{An earlier warning})_{IP} IP(\text{would allow remedy})_{IP}$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22)와 (24)는 음성적 지표에 근거한 억양구의 분석으로서 두 문장 모두가 두 개씩 IP를 갖고 있으며 이것이 해당 문장의 통사적 성분과 일치하고 있음을 보았다.

그러나 앞 장의 음운구 논의에서와 마찬가지로 지금 부터는 IP의 적형조건(well-formedness condition)이 반드시 통사적 성분에 기초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한다.

Halliday(1976)에 의하면 IP는 통사적 성분보다는 오히려 의미론적 제약을 받는다. 이에 대한 실질적 논의를 위해 억양구에 관한 그의 적형조건으로서 다음의 의미단위조건(sense unit condition)을 참조해 보자.

(25) The Sense Unit Condition on IP

The immediate constituents of an intonational phrase must together form a sense unit.

이에 따르면 억양구를 이루는 직접성분들은 하나의 의미단위를 형성하고 있어야 함을 뜻한다. 그렇다면 의미단위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해당하는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Selkirk (1984: 291)가 제시하고 있는 의미단위에 관한 다음의 기본 가설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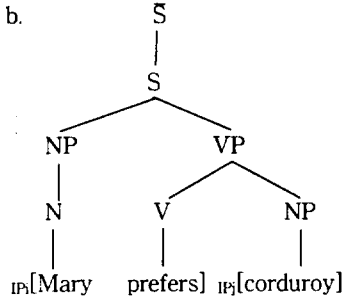
(26) Sense Unit

Two constituents C_i , C_j form a sense unit if (a) or (b) is true of the semantic interpretation of the sentence:

- (a) C_i modifies C_j (a head)
- (b) C_i is an argument of C_j (a hea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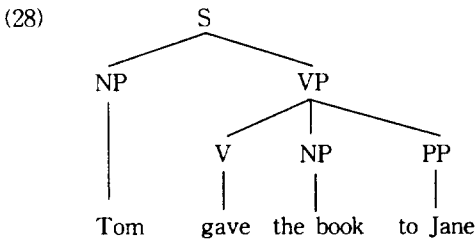
(26)의 개념에 근거해서 의미단위조건 (25)에 부합하는 억양구의 예로서 다음의 문장을 보자.

(27) a. Mary prefers corduroy.



위의 문장 (27a)는 동사와 목적어 NP가 통사성분으로서 VP를 형성하고 있으나 이것이 의미단위를 이루지는 못한다. 오히려 (27b)에서 보는 것처럼 주어인 Mary와 동사 prefers가 첫 번째 억양구가 되고 목적어인 corduroy가 독자적으로 또 하나의 억양구를 형성한다. 즉 (26b)에 따르면 주어 Mary는 동사 prefers의 논항이 된다.

의미단위조건에 의한 억양구 형성의 예를 한 가지 더 들어보기 위해 영어의 문장 Tom gave the book to Jane의 통사구조를 나타내는 나무그림을 먼저 살펴보자.



이 문장구조에 위의 (26)의 의미단위 가설을 적용시켜 보면 다음과 같이 적형의 억양구와 비적형의 억양구를 얻게 된다.

- (29) a. (Tom gave the book to Jane)
 b. (Tom)(gave the book to Jane)
 c. (Tom gave the book)(to Jane)
 d. (Tom gave)(the book)(to Jane)

- e. (Tom)(gave the book)(to Jane)
- f. (Tom)(gave)(the book)(to Jane)

- (30) a. *(Tom)(gave)(the book to Jane)
- b. *(Tom gave)(the book to Jane)

(30)의 두 예가 억양구로서 비적형이 되는 것은 마지막 억양구인 (the book to Jane)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즉 이 경우에 NP인 the book과 PP인 to Jane 사이에 (26a)의 수식어-핵(modifier-head)관계도 성립되지 않고 또한 (26b)처럼 논항-핵(argument-head)관계도 성립되지 않아 결국 어떤 식으로도 의미단위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29)의 모든 예에서는 의미단위를 이루고 있어 억양구로서 손색이 없는데, 이 중 한 예를 들어 (29e)를 보자. 이 경우는 세 개의 억양구로 구성되어 있는데 가운데 억양구인 (gave the book)은 (28)에서 보듯이 자체적으로 통사단위를 이루고 있지 못하지만 논항-핵 관계로써 의미단위를 이룬다. 따라서 이는 억양구로서 적형이 된다. 다른 한편으로 세 번째 억양구가 되는 (to Jane)도 수식어-핵 관계로써 적형의 억양구가 된다.

지금까지 우리는 (25)와 (26)을 통해서 영어의 억양구가 통사단위가 아닌 의미단위로써 구성되는 것을 보였다. 그러면 이번에는 앞의 관계절 문장의 예 (1)에 대한 억양구 분석을 같은 방법으로 해보자. 이를 위해 논의의 편의상 (1)을 다음의 (31)로 옮겨 놓는다.

- (31) a. This is [the cat that caught [the rat that stole [the cheese]]]
- b. [This is the cat] [that caught the rat] [that stole the cheese]

(31a)는 통사적 성분분석이고 (31b)는 억양구에 의한 분석이다. (31a)의 구조에서 보면 NP인 the cat도 the rat도 동사와 관련해서 어떤 의미단위도 이루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억양구로 나뉘어 있는 (31b)에서는 NP인 the cat과 the rat이 각각 해당 동사의 논항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의미단위를 이룬다. 물론 이 두 NP는 이어지는 억양구, IP와 IP의 수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논항

은 못되지만 Selkirk(1984: 294)가 제시하는 방안을 도입해서 논항-핵 관계를 논항구(argument phrase)의 핵과 직접성분의 핵 사이의 관계로 간주해 주면 해결이 된다. 즉 (31b) 세 억양구 속에서 각각 동사와 목적어 NP 사이에 논항-핵 관계로서 의미단위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영어의 보문소(complementizer)가 이끄는 절(clause)이 들어 있는 복합문장에서의 억양구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다음의 영어 문장을 보자.

- (32) a. We think that the No-Kun-Ri massacre is a tragedy.
 b. They believe that the American government is responsible for the No-Kun-Ri massacre.

이들 문장에서 문제의 핵심은 보문소 that가 주절 문장에 포함되는 식으로 억양구를 이루는가 아니면 종속절 문장에 포함되는 억양구를 이루는가이다. 그런데 영어를 외국어로 학습하고 있는 대부분의 한국 학생들에게서는 전자의 경우를 선택하고 있음을 본다⁶⁾. 즉 이들은 (32)의 문장을 읽거나 말할 때 보문소 that 뒤에서 휴지를 두며, 따라서 that의 발음이 매우 강하게 나타난다. 이런 식의 발음은 영어의 원어민들에게는 이상하게 들리며, 원어민들의 발화에서는 that 앞에서 휴지를 두으로써 이것이 that 이하의 종속절과 억양구를 이룬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위의 (32)는 아래와 같은 억양구 분석을 가정할 수 있다.

- (33) a. [We think][that the No-Kun-Ri massacre is a tragedy]
 b. [They believe][that the American government is responsible for the No-Kun-Ri massacre]

이에 대한 하나의 증거로서 (32)에서 that을 포함하는 종속절, 즉 IP

6) 이를 위해 제주대학교 일문과 1학년 4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문장을 읽도록 하고 녹음시킨 바 있다. 그 결과 피실험자의 80% 이상이 보문소 that을 주절 문장에 포함시켜서 읽었고, 따라서 이 문장에서의 휴지의 위치를 that 다음의 자리로 잡고 있는 것을 관찰하였다.

부분이 전체가 다음의 문장에서 보듯이 Subject Complementation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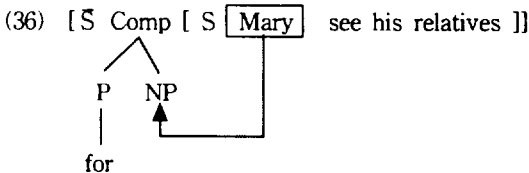
- (34) a. [That the No-Kun-Ri massacre is a tragedy] is not true.
 b. [That the American government is responsible for the No-Kun-Ri massacre] is not true.

또한 일반적으로 보문소는 통사적으로 미미한 요소이고 의미가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사실은 보문소로서 that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for-to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Bresnan (1970)이 다음의 예문을 가지고 제시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35) a. It may distress John for Mary to see his relatives.
 b. It may distress John that Mary sees his relatives.

즉 Bresnan에 의하면 (35a)와 (35b)의 두 문장은 의미에 있어서 동일한 문장이 아니며, 특히 (35b)에서는 'Mary가 John의 친척을 실제로 만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반면에 (35a)에서는 그런 전제가 없다.

따라서 보문소 that에도 의미가 존재하며, 이것이 종속절과 함께 하나의 의미단위를 이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실제로 for-to 보문소에서 for는 격을 부여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다음을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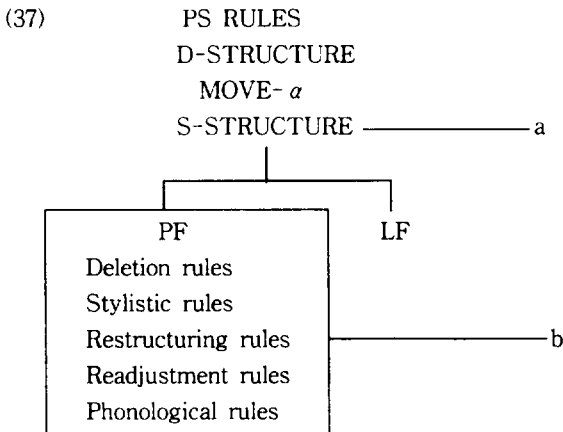
(36)에서 S 속에 있는 Mary가 for의 격지배를 받아 만일 대명사로 전환된다면 she 대신에 her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보문소는 의미와 관련이 있으며 의미단위를 이루는데 관여한다고 볼 수 있다.

4. 결 론

지금까지 우리는 운율구조의 상위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음운구와 억양구가 각각 통사구조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대하여 논의해 왔다. SPE에서 Chomsky & Halle가 이미 언급한 바 있듯이, 그리고 그 후 Langendoen(1975)과 Selkirk(1984), Zwicky(1984), Kaisse(1985) 등에서 공통적으로 밝히고 있듯이, 통사구조와 이들 운율구조 사이에는 재조정규칙의 적용으로 말미암아 실제 발화에서 요구되는 구조가 도출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이를 위해 음운구 논의에서는 영어의 동사 *sell*이 갖는 하위범주화와 NSR에 의한 운율구조를 비교하였고, 이어 영어의 이항명사류가 갖는 통사구조와 음운구조를 비교 분석하였으며, Zwicky가 분석한 음운구 구성에 작용하는 의존소의 특성을 검토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억양구 논의에서는 음향음성학적인 특성으로서 경계성조로 나타나는 억양구의 구분과 의미단위 분석에 의한 억양구 구분을 고찰하였다. 이어서 영어의 보문소 *that*을 가지는 복합문장에 대한 억양구 구분도 시도하였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이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모든 논거들은 Kaisse(1985: 110)가 제시하는 아래의 문법구조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문법구조 틀을 고려할 때 구어 영어학습의 올바른 방향을 설정할 수 있으리라 본다. 즉 구어영어 학습의 출발은 발화된(uttered) 문장이기 때문에 위의 (37)에서 PF가 학습의 입력(input)이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구어 영어학습에서는 예를 들어 (1b)부터 학습을 해야지 통사적 지식의 학습으로 (1a)를 먼저 학습할 경우 영어의 리듬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학습이 되고 말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은 구어영어 학습에 관한 한 (37a)가 아니라 (37b)에서 출발해야 하는 근거를 (37)의 a와 b 사이의 여러 재조정규칙을 논의함으로써 제시하였다.

참고문헌

- Bresnan, J.(1970) "On Complementizers: Toward a Syntactic Theory of Complement Types." *Foundations of Language* 6: 279-321.
- Bresnan, J.(1972) "Stress and Syntax: A Reply." *Language* 48: 326-342.
- Chomsky, N. & M. Halle(1968) *The Sound Pattern of English*, Harper & Row, Publishers, New York, Evanston, and London
- Halliday. M.A.K.(1967a) *Intonation and Grammar in British English*, The Hague: Mouton.
- Halliday, M.A.K.(1967b) Notes on transitivity and theme in English, Part II. *Journal of Linguistics* 3, 199-244.
- Kaisse, E. M.(1985) *Connected Speech: The interaction of Syntax and Phonology*. Orlando, FL: Academic Press.
- Ladefoged, P.(1993) *A Course in Phonetics*, 3rd ed.
- Langendoen, D. T.(1975) Finite-state parsing of phrase-structure languages and the status of readjustment rules in the grammar, *Linguistic Inquiry* 6: 533-554.
- Lee, K-S. (1990) "The Phonological Constraints on English Binominals." *The Journal of Studies in language* 7: 177-206.
- Nespor, M. & I. Vogel(1986) *Prosodic Phonology*, Dordrecht: Foris.
- Pierrehumbert, J. B.(1980) "The Phonology and Phonetics of English Intonation," Ph.D. Dissertation, MIT.
- Rotenberg, J.(1978) *The Syntax of Phonology*. Doctoral dissertation,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 Schmerling, S.(1980) The proper treatmen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yntax and phonology. Paper presented at the 55th annual meeting of

the Linguistic Society of America, San Antonio.

Selkirk, E. O.(1980) "The Role of Prosodic Categories in English Word Stress," *Linguistic Inquiry* 11: 563-605.

Selkirk, E. O.(1984) *Phonology and Syntax: The Relation between Sound and Structure*, The MIT Press.